

정의홍 시의 비판적 현실인식 연구

김교식(군산대)

〈목 차〉

- | | |
|-------------------------|-------------------|
| 1. 머리말 | 4. 전통의식과 비판적 현실인식 |
| 2. 성적 이미지와 비판적 현실인식 | 5. 맺음말 |
| 3. 고전 작품의 패러디와 비판적 현실인식 | |

1. 머리말

산업화와 근대화의 물결 속에서 1970년대의 한국시는 현실 담론을 토대로 한 리얼리즘 경향의 작품들이 주로 창작되었다. 하지만 이런 유의 시들은 너무나 흔했기 때문에, 시는 그 시대의 이상적인 삶을 추구함이 없이는 생명력을 가질 수 없다는 대의에도 불구하고, 대세추수주의로 매도되는 경향도 없지 않았다.¹⁾

문학의 예술성에 방점을 찍고 생각해 보면 시대적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현실시는 미학적 측면에서 다소 소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인지 이 시기의 작품들은 구호적이고 직접적인 성향이 짙어서 문학의 예술적 측면에서는 약점을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²⁾ 이 시기에 발표된 작품들은 부정적

1) 신경림, 『춥고 어두운 세월 속, 치열한 시정신의 軌跡』, 『하루만 허락받은 시인』, 새미, 1996, 128면.

현실을 제시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시적인 맛, 문학적 재미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이 시기에 왕성하게 작품 활동을 했던 정의홍(鄭義泓, 1944~1996)의 시는 이들과는 다른 작품으로 평가된다. 정의홍의 시는 “현실이나 그에 대한 감정이 생경하게 드러나지 않고 시적 여과를 거친다”³⁾는 신경림의 말처럼 여타의 시와는 다르게 읽힌다. 정의홍의 시가 당대의 다른 시들과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은 부조리한 현실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기보다는 시적 여과를 거쳐 다양한 의미망을 생성함으로써 시적인 맛을 간직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의홍은 1967년 『현대문학』에 김현승의 추천으로 문단에 데뷔하였다.⁴⁾ 이후 다수의 시 작품을 발표한 것은 물론, 평론과 논문 등도 발표하면서 연구자로서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 그가 발간한 시집은 『밤의 幻想曲』(신라출판사, 1976)과 『하루만 허락받은 시인』(새미, 1996)이다. 김용재와 김현정에 의하면 시집으로 묶이지 않은 정의홍의 미발표 작품은 50편 정도가 된다⁵⁾고 한다. 본고에서는 『밤의 幻想曲』과 『하루만 허락받은 시인』에 수록된 작품으로 텍스트의 범위를 한정하였다. 미발표 시에 대한 연구는 작품을 꼼꼼히 수집하고 정리하여 다음 연구의 대상으로 미룬다.

정의홍 시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는 그의 시를 이미지즘과 창작기법의 측면에서 분석한 것⁶⁾이고, 두 번째는

2) 1970년대의 민중시는 사회적 상황이 정치 문화의 폐쇄성과 급격한 산업화의 물결에 의해 혼돈을 거듭하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을 드러낸다. 현실에 대한 비판과 풍자가 시를 통하여 표출되기도 하였고, 소외된 민중의 삶의 모습이 시를 통해 그려지기도 한다. 시인 자신이 현실에 대해 지니고 있는 도덕적 열정이 진취적인 시 정신과 과격한 언어로 묶여서, 때로는 지나치게 이념적인 색채를 드러내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경우도 적지 않다.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2, 민음사, 2002, 346면.)

3) 신경림, 앞의 글, 128면.

4) 정의홍은 『현대문학』지에 『나의 習作』(1965. 7, 1차 추천), 『내 손금은』(1966. 11, 2차 추천), 『눈의 序曲』(1967. 2, 3차 추천) 등의 작품을 김현승 시인에게 추천받아 등단하였다. 김현승은 추천완료 후기에서 『눈의 序曲』은 1, 2회보다 뛰어난 작품일 뿐 아니라, 이른바 새 世代의 知的인 風貌를 담백 간직한 것으로서 이 世界에서는 鄭君이 탁월한 성공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적고 있다. (김현정, 『하루만 허락받은 시인 정의홍』, 정의홍시비 건립위원회, 『정의홍 시인의 삶과 문학』, 호서문학사, 1999, 148~150면 참조.)

5) 김용재·김현정, 『정의홍의 시세계 - 그의 시에 나타난 근대성을 중심으로』, 『인문과학논문집』30집, 대전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0, 34면.

6) 정의홍의 시를 이미지즘과 창작기법에 주목하여 연구한 논문으로는 이승원, 『사랑의 길목에서 저항의 능선까지』, 『現代詩와 傳統意識 - 震檀詩同人의 文學的 成果研究』, 문학예술, 1991

시인의 비판적 현실 인식이 어떻게 시로 형상화 되었는가에 주목한 것⁷⁾이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정의홍의 시를 단편적으로 분석하였거나 텍스트의 범위를 몇몇 작품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그의 문학적 특징을 전체 작품 속에서 모색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정의홍의 시세계를 구성하는 근원적인 모티브는 비판적 현실인식에서 찾을 수 있는데, 여기에는 현실에 대한 부정성이 내포되어 있다. 시인의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결부되어 있다. 정의홍은 7·80년대의 사회 구조적 모순과 부조리한 현실을 직설적으로 폭로하기보다는 다양한 시적 여과 장치를 통해 시로 형상화함으로써 그만의 시세계를 구축한다. 즉, 시대적 아픔을 반추하거나 억압에 항거하고 진실의 편에서 지혜를 모색했던 것이다.

이 글은 선행연구자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정의홍 시의 비판적 현실인식을 성적 이미지의 생성과 고전 작품의 패러디, 전통의식의 표출 등의 세 가지로 추출하여 개진하고자 한다. 이것은 문제적 현실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기 보다는 성적인 이미지, 고전 작품의 패러디, 전통의식의 표출 등의 시적 여과를 거침으로써 정의홍 시의 자리를 확고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문제적 현실에 대한 성찰을 제시하고 있는 정의홍의 시 중에는 시적 대상의 상투성과 비체험적인 요소를 내재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서 그의 시적 한계가 드러나는 것도 사실이다.⁸⁾ 이러한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는 문제적 현실에 대한 폭넓은 비판과 바람직한 삶의 자세를 일깨우는 윤리적

; 홍신선, 『물과 참외의 두 길』, 『현대시』 7월호, 1996; 박진환, 『情 많고 남달리 의협심 강했던 詩人』, 『진단시』 제21집, 1996. 10. 1; 정신재, 『진실을 깨우는 소리 - 정의홍 시집 『하루만 허락받은 시인』』, 『시문학』 10월호, 1996; 김완하, 『현실에 대한 사랑과 그 고통 - 鄭義泓의 『하루만 허락받은 시인』』, 『호서문학』 22, 1996. 11; 김교식, 『『밤의 幻想曲』의 성적 이미지저리 고찰』, 『대전어문학』 제17집, 대전대학교 국어국문학회, 2000. 2; 빈명숙, 『鄭義泓 詩 研究』,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8. 등이 있다.

7) 정의홍의 시를 비판적 현실인식의 형상화에 주목하여 연구한 논문으로는 장백일, 『파쇼에 저항하는 詩精神 - 시집 『하루만 허락받은 시인』의 증언』, 『진단시』 제21집, 1996. 10. 1; 이광희, 『저항시의 고향』, <대전매일신문> 1996년 10월 16일과 10월 23일 2회 연재; 조미나, 『자유와 순수를 향한 한얼의 파수꾼』, 『호서문학』 22, 1996. 11; 김용재·김현정, 『정의홍의 시세계 - 그의 시에 나타난 근대성을 중심으로』, 『인문과학논문집』 30집, 대전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0 등이 있다.

8) 신경림, 앞의 글, 136~137면.

담론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그만의 독특한 시적 아름다움을 획득하여 또 다른 현실지향시의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적 의의가 있다.

2. 성적 이미지와 비판적 현실인식

정의홍의 시는 현실 생활에 시적 모티브를 두고 있다. 그래서 그의 시를 깊이 있게 읽어내기 위해서는 시인의 현실인식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왜냐 하면 정의홍의 시는 현실에 대한 꼼꼼하고 냉철한 관찰에서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체험의 배경이 숨어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체험적 배경이란 삶의 한 과정이요 진실을 옹호하는 리얼리티의 한 장면이다.⁹⁾ 그것은 시인이 세상을 이해하는 소통의 자장으로써 시의 근간을 이룬다. 그는 현실적 체험을 토대로 시를 형상화함에 있어서 시적인 면모에 정성을 들인다.

나는 詩를 쓸 때 題材의 對象을 중시 여긴다. 詩의 題材를 무엇으로 設定하느냐에 따라 意味附與의 詩가 되느냐, 아니면 단순히 事物의 客觀的 表出의 시가 되느냐의 方向을 규정지어 주기 때문이다. 내 詩의 경우, 題材上의 배경은 대체로 文明批判的인 것과 사회나 인간현실에 바탕을 둔 도덕적 책임감을 역설한 부류의 것이 많다.¹⁰⁾

시작품 속에 道德的 責任과 意味를 부여하되, 되도록 시적인 맛을 상실하지 않도록 신선한 이미지와 밀도있는 질서를 세워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나의 詩를 評하는 분들은 흔히 이미지의 表出作用에 대해서는 언급이 있으나, 시적인 바탕이나 배경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¹¹⁾

위의 글에서는 정의홍의 시 작업에 대한 생각을 엿볼 수 있다. 그는 시를 창작하는데 있어서 시적 대상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그의 시는 문명비판적인 것과 사회나 인간현실에 바탕을 둔 시들이 대부분이다. 시 작품 속에 도덕

9) 정의홍, 『詩의 眞實性을 위하여』, 『현대시학』, 1975. 8, 83면.

10) 정의홍, 『身邊雜記의 뒷두리』, 『시문학』3, 1982, 53면.

11) 위의 글, 53면.

적 책임과 의미를 부여하더라도 ‘시적인 맛’을 상실하지 않도록 신선한 이미지와 밀도있는 질서를 세우려고 노력하였다. 이러한 시인의 창작 의도로 볼 때 그의 시가 문명비판적이고 현실 고발의 성격을 띠고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시와 대조되는 것은 ‘시적인 맛’을 잃지 않도록 유념했다는 점이다. 정의홍이 말한 ‘시적인 맛’은 신선한 이미지와 밀도있는 질서의 표출로 주제의식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을 일컫는다. 즉, 시적 대상을 시인의 눈으로 정확하게 인지하고 개성적인 상상력의 에스프리(esprit)를 통해 시라는 결과물을 생산한 것이다.

위와 같은 시인의 시작 태도를 감안할 때 정의홍 시의 첫 번째 특징은 문명 비판적이고 현실 고발의 주제를 표현하기 위하여 성적인 이미지들을 자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의 시편에서 성적인 표현들은 상당한 빈도로 나타난다. 정의홍을 이미지스트로 규정한 연구자들은 그의 작품에서 성적 이미지가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¹²⁾ 정의홍 시의 성적 이미지는 반동형성의 한 형태로 독재의 억압에 대한 증오의 적의를 숨기기 위해 사랑이라는 가면을 썼던 것이다. 즉, 권력있는 자를 비판하기 위해 ‘성적 이미지리’를 이용하고 있다.¹³⁾

일반적으로 성적 이미지는 ‘사랑’이 전제될 때 의미를 갖는다. “사랑은 본질적으로 주는 동시에 꼭 받아야만 하는 당위적 존재이다. 모든 것을 바치거나 희생한 만큼의 댓가를 사랑으로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주기만 한다거나 받기만 하는 경우의 사랑은 사랑의 주체자로서의 자격증을 이미 상실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¹⁴⁾ 인간의 성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이유는 성이야말로 일상생활의 인간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위치짓는 중요한 기준점이며 그것을 통하여 삶의 모든 면을 성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에 대한 논의나 글쓰기가 필요한 것은 성이 자아와 타자를 연결하는 중요한 고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을 매개로 한 인간 관계나 일상 공간 속에서 성 권력이 내밀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성에 대한 성찰은 일상성에 대한 치밀한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이것은 또 하나의 새로

12) 김완하, 박진환, 정신재, 홍신선, 김교식의 앞의 글 참조.

13) 김용재·김현정, 앞의 논문, 43면.

14) 정의홍, 『사랑의 모든 것』, 『심상』11, 1986, 59면.

은 시각의 사회 비판의 목소리이며 대안 문화 만들기가 될 것이다.¹⁵⁾

암탉이 꼬고오 하고 낳은 달걀같다.
바람난 손이 훑다가 그냥 버린
그리움의 젓꼭지같다.
내 아내가 외도하다 들켜버린
불안의 열매같다.
참말로 울음만 타오르는 언덕같다.

- 「달」(『밤의 幻想曲』, 27면) 전문

위에 인용한 시는 제 1시집 『밤의 幻想曲』에 수록된 「달」이라는 작품이다. 달은 빛과 주기에 따라 보름달, 상현달, 하현달, 초승달, 그믐달 등의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다. 달은 어떤 종류이든 둥근 성질을 갖고 있고,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여 밤을 밝히는 객관적 상관물이다. 달은 하늘에 위치하여 인간 세상을 밝히는 하강적 이미지를 담고 있다. 또한 달의 주기성은 여성성을 띠는데, 여성성은 여성의 월경과 같은 맥락에서 생산의 의미를 갖기도 한다.¹⁶⁾

위에 인용한 시 「달」은 ‘A=B’라는 비유의 구조를 띠고 있다. 여기서 A는 ‘달’이고, B는 ‘달걀, 젓꼭지, 열매, 언덕’이다. 달의 보조관념인 ‘달걀, 젓꼭지, 열매, 언덕’ 등의 사물들에서 유사한 점을 발견하는 것은 쉽지 않다. 다만 이것들은 달의 속성처럼 ‘둥글다’라는 형태상의 공통성을 갖는다.

여기서 “암탉이 꼬고오 하고 낳은 달걀”과 “바람난 손이 훑다가 그냥 버린 / 그리움의 젓꼭지”, “내 아내가 외도하다 들켜버린 / 불안의 열매” 등은 달의 보조관념으로 쓰였는데 대부분 성적인 표현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의홍의 시는 성적인 표현을 하더라도 ‘바람난 손’이나 ‘외도하다 들켜버린’처럼 부정적이고 비윤리적인 시어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바람난 손이 훑다가 그냥 버린 / 그리움의 젓꼭지”에서 바람이 나는 주체는 ‘손’이다. ‘손’이 그리움의 젓꼭지를 훑다가 그냥 버리는 것은 시적 대상에 대한 부정의식의 묘출로 이해된다. 젓꼭지가 상징하는 것이 ‘달’임을 상기할

15) 김은하, 『현대사회와 문학적 상상력』, 거름, 1997, 234면.

16) 이승훈, 『문학상징사전』, 고려원, 1995, 110~115면.

때, 화자의 이러한 행위는 대상에 대한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의 부재로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내 아내가 외도하다 들켜버린 / 불안의 열매”에서 외도의 주체는 ‘내 아내’이다. 아내는 “외도하다 들켜버”려 불안해하고 있다. 여기서 ‘열매’는 아내의 외도로 인해 생성된 불안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다. “외도하다 들켜버린” 아내의 심리를 ‘달’로 형상화하는 것은 시적 대상에 내재해 있는 시인의 불안의식 때문이다. 이처럼 그의 시에서 성적 이미지는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면을 노래하기보다는 바람이 나거나 외도를 하는 등의 부정적이고 비윤리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달」에서 주목할 것은 ‘달’이라는 객관적 상관물에 ‘달걀’, ‘젓꼭지’, ‘열매’ 등의 시어가 배태하게 된 경위이다. 주지하다시피 달걀, 젓꼭지, 열매 등의 시어는 ‘달’의 특징을 시인의 인지 과정과 상상력을 통해 곡진하게 표현하고 있는 시어들이다. 이들 시어는 하나같이 생산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면모를 기대하게 된다. 하지만 “젓꼭지”를 수식하는 “바람난 손이 훑다가 그냥 버린 / 그리움”이나 ‘열매’를 수식하는 “내 아내가 외도하다 들켜버린 / 불안” 등은 이들 시어가 갖고 있는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의미를 반감시키는 수식어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홍의 시에서 ‘달’은 “참 달로 울음만 타오르는 언덕”처럼 우울한 분위기를 자아낼 수밖에 없다.

이처럼 시인은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시어들을 구사함에 있어서 부정적인 성적 이미지로 점철하고 있는데, 이는 시적 대상에 대한 시인의 비판적 인식의 표출로 이해된다. 시적 대상에 대한 비판적 인식은 ‘달’이라는 대상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여타의 작품에서도 확인되는 정의홍 시의 일반적인 특징 중 하나이다.

1

낮이 와도 내가 못한 말을 하지 못하고, 낮이 워크를 보내며 손을 내밀어도 나의 악수는 굳어버린다. 밤만이 두 다리를 뻗고 있는 몸뚱어리, 몸뚱어리엔 말이며 웃음이며 몸짓의 化粧을 할 수가 없다. 없는 게 아니라 참으로 化粧하는 방법조차 모르는 마을이여.

2

내 육체는 强姦을 당한 채 나동그라졌다. 부러진 손가락이며 밤이 짐승처럼

누워있는 언덕이며 오, 내 육체는 이미 나의 것이 아니다. 쥐떼들이 사타구니부터 모조리 갉아먹고 뺏조각만 앙상하게 남았을 뿐, 그래도 내가 못한 말을 하지 못하고, 그래도 내가 내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이 산등성을 겨울하는 빙긋이 웃으며 넘어다본다.

—「내가 못한 말을」(『밤의 幻想曲』, 35면) 전문

인용한 시에서 화자는 ‘낮’과 ‘밤’의 시간 동안 ‘내가 못한 말’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다. 화자에게 ‘낮’의 공간은 소통의 시간으로 이해되지만 “낮이 링크를 보내며 손을 내밀어도 나의 악수는 굳어버린다.”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소의를 경험한 화자에게 ‘밤’은 “두 다리를 뺏고 있는 몸뚱어리”로 남는다. 화자의 “몸뚱어리엔 말이며 웃음이며 몸짓의 化粧”을 할 수가 없다. 화자는 자신이 못한 말을 어떻게 해야 할 지 그 “방법조차”도 찾지를 못했다.

이러한 화자에게 “육체는 이미 나의 것”이 아니고 “쥐떼들이 사타구니부터 모조리 갉아먹고 뺏조각만 앙상하게 남”게 된다. ‘내가 못한 말’ 때문에 “내 육체는 强姦을 당한 채 나동그라”지고, ‘손가락이 부러지고’, “짐승처럼 누워”만 있을 뿐이다. 여기서 화자는 ‘내가 못한 말’로 인해 정신과 육체의 분리를 경험한다. ‘말’의 기능을 상실한 화자의 ‘육체’는 ‘짐승’이나 마찬가지로이다. 그러므로 할 말을 하지 못하는 화자에게 ‘정신’의 부재는 짐승의 ‘육체’로 각인되는 것이다. 이것은 진실을 발설하지 못하는 억압적 현실에 대한 화자의 아픔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 시에 사용된 ‘强姦’이나 ‘사타구니’ 등의 성적인 시어들은 ‘내가 못한 말’로 인해 억압과 착취의 과정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이미지로 이해된다. 낮이 되어도 하지 못하는 화자의 ‘말’이 무엇을 뜻하는가 하는 것은 이미 자명한 일이다. 그는 ‘말’의 상실을 통하여 강간당한 화자의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소통의 부재와 소외의식을 경험하고 있다. 그러므로 화자가 밀폐된 공간의 문제적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말’뿐이며, ‘말’로 인해서 억압과 착취의 부조리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하지만 ‘악수가 굳어버리고’, ‘강간을 당’하는 화자의 아픔은 자칫하면 아픔 자체만을 토로한 것에 그칠 수 있기 때문에 경계해야 한다.

한 송어리 안개였다가

물거품처럼 터진 내 허기진 방안에
 폐병을 앓고 있는 겨울의 흰 얼굴이
 분화장을 하러 기어왔습니다.
 목졸린 주둥이로 반항의 씨앗을 뱉어버린
 벽시계의 엉큼한 헛바닥이
 콧부리를 핥으며 나를 유혹하고,
 촛불처럼 타오른 자주빛 고양이의 눈에
 문명의 혼을 씹던 달빛의 웃음이
 우두둑 떨어졌습니다.
 몇 년이고 지쳐버린 마음 속의 난로는
 새까맣게 죽어가는 담뱃불을 숨가쁘게 빨고,
 오, 시방도 허기진 자정의 방안에
 흥역을 앓는 인생의 기관차가 지나갑니다.

- 「깊은 밤」(『밤의 幻想曲』, 45면) 전문

「깊은 밤」에서 화자는 삶에 대한 회한과 무의식적 욕망을 이미지를 통해 드러냄으로써 자아를 성찰하고 있다. 다소 관념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 이 시에서 화자는 “폐병을 앓고 있는 겨울의 흰 얼굴”에서 자화상을 보고 있다. 그가 머물러 있는 공간은 ‘물거품처럼 터진 허기진 방안’이다. 그는 삶에 대한 의지가 퇴색한 ‘허기진 방안’에서 “흥역을 앓”고 있다. 삶에 대한 불안의식은 화자의 비판적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그것은 “목졸린 주둥이로 반항의 씨앗을 뱉”어버린 ‘벽시계’를 통해 부조리한 현실 상황에서도 삶에 대한 의지를 자족적으로 터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화자에게 ‘허기진 방’은 자아를 성찰하는 실험적 공간으로 볼 수 있다.

“목졸린 주둥이로 반항의 씨앗을 뱉어버린 / 벽시계의 엉큼한 헛바닥”은 문제적 현실에 대한 화자의 내면의식을 드러내고 있는 대상이다. 여기서 ‘목졸린 주둥이’는 부정적 현실의 억압과 탄압의 상징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항의 씨앗을 뱉”어버린 ‘벽시계’가 화자의 “콧부리를 핥으며” 유혹하는 것은 어떠한 억압과 탄압의 상황에서도 시간의 흐름을 직시하고 있는 ‘벽시계’의 자존감을 통해 자기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정의흥은 화자의 ‘콧부리를 핥는 벽시계의 유혹’이라는 성적인 이미지를 통해

자아를 성찰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춥처럼 타오른 자주빛 고양이의 눈에 / 문명의 혼을 썩던 달빛의 웃음이 / 우두둑 떨어졌”다는 것은 삶에 대한 좌절 의식의 표출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화자는 “마음 속의 난로” 하나를 갖고 있다. 화자는 삶의 과정에서 경험했던 좌절의식을 극복하기 위해 “새까맣게 죽어가는 담뱃불”의 불씨를 “숨가쁘게 빨고” 있다. 그러므로 “홍역을 앓는 인생의 기관차가 지나”가고 있는 “허기진 방”은 화자가 당대의 문제적 현실에 대한 폭넓은 비판과 자아의 삶에서 바람직한 자세를 얻기 위해 괴로워하고 번뇌하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시방도 허기진 자정의 방안에 / 홍역을 앓는 인생의 기관차가 지나”가는 것은 음울하고 절망적인 삶에서 자기 반성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정의홍의 시는 현실의 문제를 제시하거나 해결책을 논하는데 있어서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의 시에 나타나는 이미지 중에는 성적인 표현들이 자주 등장한다. 여기서 발견되는 성적 이미지는 부조리한 현실의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에서 타당한 대안을 찾기 위한 시적 여과 장치로 이해할 수 있다.

그의 시는 시적 인식을 통해 객관적 상관물을 상상력으로 용해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한다. 이것은 문학 작품이 정치적 판단에 의한 도구라기보다는 예술적 미를 함축하고 있을 때에야 비로소 효용성을 지니기 때문에 그의 이미지 창출은 예술적 미를 담아내기 위한 방법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이러한 이미지에만 국한하여 작품을 읽는다면 정의홍 시의 본질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의 대체의 시들은 비판적 현실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비판적 현실인식은 시인이 세상을 읽어내는 상상의 힘하면서 그것을 시 작품으로 형상화해내는 초석이기 때문에 그의 작품 행간을 구성하는 기저라고 할 수 있다.

3. 고전 작품의 패러디와 비판적 현실인식

정의홍의 시가 지닌 또 하나의 특징은 고전 작품을 현재적 의미에서 재해

석하고, 이를 패러디하여 작품으로 승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의홍의 시는 왜곡된 현실을 고발함에 있어서 고전 작품을 패러디하여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고전 작품의 패러디에 대한 정의홍의 생각은 다음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 시에 있어서 古語에 대한 문제나 古典에 대한 새로운 발굴은 실험되어야 마땅하리라 믿는다. 진정한 의미에서 傳統이란 古典에 근거를 둔 詩精神의 연속성을 뜻한다. 시에 있어서 구질서의 붕괴는 傳統의 斷絶과 詩精神의 방황을 끌어들이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의 詩가 생동적인 美를 지니며 매카니즘에 도전하려면 우리 고유의 言語에 대한 애착은 물론, 古典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 이것은 인간과 사물 사이에 놓인 原型의인 관계를 파악하고 전통에 입각한 可視의 세계를 발굴하려는 하나의 精神活動이기 때문이다.¹⁷⁾

그는 시에 있어서 고어에 대한 문제나 고전에 대한 새로운 발굴은 계속 실험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진정한 의미에서 전통이란 고전에 근거를 둔 시정신의 연속성을 뜻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 생동적인 미를 지니고 매카니즘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고어에 대한 애착은 물론, 고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 그것은 인간과 사물 사이의 원형적 관계를 파악하고 전통에 입각한 가시의 세계를 발굴하려는 정신활동이기 때문이다. 고어나 고전에 대한 정의홍의 이러한 생각은 그의 시에서 고전 작품을 패러디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¹⁸⁾ 부조리한 현실을 비판하기 위하여 현실을 고전 문학의 공간으로 치환하고 날카로운 풍자와 해학으로 접근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시인은 왜곡된 현실을 바로잡고 진실로 나아가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패러디는 원전의 모방과 변형, 희극성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며 풍자적 목적을 실현하는 주요한 방법이다. 그것의 주된 동기는 현재의 어리석음과 악을 야유하기 위한 것이며, 패러디스트는 원전의 형식과 문체의 균형을 왜곡함으로써 자기 주장을 관철시킨다.¹⁹⁾ 정의홍은 이러한 패러디

17) 정의홍, 『個性的인 詩領土의 摸索』, 『문학과지성』6권 1호, 1975. 3, 153면.

18) 고전 작품을 패러디 하여 시의 소재로 다룬 작품들은 대부분 그의 두 번째 시집인 『하루만 허락받은 시인』(새미, 1996)의 제Ⅱ부에 수록되어 있다.

의 수법을 작품 형성의 방법으로 수용하고 있다. 먼저 그의 두 번째 시집인 『하루만 허락받은 시인』에 수록되어 있는 「미국산 놀부 2」를 읽어보자.

떠나라 해도 떠나지 않고
떠나지 말라 해도 떠나갈 줄을
나는 알고 있다.
그대에게 우리는
짝사랑을 호소하는 연애편지일 뿐
답장을 기다리거나
한눈을 팔아서도 안 됨을
나는 알고 있다

남들은 오장육보인데
그대는 심술보가 하나 더 붙어
오장칠보라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병든 소 팔아먹기, 형제간 인연 끊어 놓기
웃는 농부 입 찢어 놓기
모든 작품이 그대 심술보 때문임을
나는 알고 있다
그대에게 우리는 밑을 닦는
한 조각 휴지일 뿐
믿음마저 잃었음을 알고 있다

— 「미국산 놀부 2」(『하루만 허락받은 시인』, 49면) 전문

『홍부전』에 등장하는 놀부가 위 작품에서는 ‘미국산 놀부’로 변형되어 나타난다. ‘놀부’와 ‘미국’의 결합은 이질적이고 자연스럽지 못하다. 그러나 정의홍은 『홍부전』에 등장하는 놀부를 패러디하여 ‘미국산 놀부’로 명명하고 있다. 『홍부전』의 놀부와 「미국산 놀부 2」의 놀부 사이의 거리는 상당히 멀다. 정의홍은 『홍부전』에 등장하는 놀부의 모방과 변형을 통해 우리 사회의 모순을 야기하는 대상의 폭압을 폭로하고 있다.

19) 이순옥, 「풍자와 패러디」, 김준오 편, 『한국 현대시와 패러디』, 현대미학사, 1996, 191면.

『미국산 놀부 2』에서 화자는 미국과 우리의 관계를 고구하고 있다. 즉, 미국에게 우리는 “짜사랑을 호소하는 연애편지일 뿐 / 답장을 기다리거나 / 한 눈을 팔아서도 안” 되는 존재이다. 일방적인 짜사랑은 소통의 부재를 의미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힘의 논리는 소통의 부재를 야기하였고, 미국과 우리의 종속적 관계는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미국산 놀부’가 우리에게 하는 못된 것들은 “병든 소 팔아먹기, 형제간 인연 끊어 놓기 / 웃는 농부 입 찢어 놓기” 등이다.

이를 통해 화자는 한미 FTA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문제들과 그로 인한 농민들의 아픔을 상기하고 있다. 또한 ‘형제간 인연 끊어 놓기’는 한국전쟁 이후 분단 현실을 ‘미국산 놀부’의 심술보에서 찾고 있다. 이것은 ‘미국산 놀부’만이 갖고 있는 심술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의 처지는 미국의 “밑을 닦는 / 한 조각 휴지일 뿐”이라고 시인은 한탄하고 있다. 화자는 왜곡된 자본주의의 현실에 함의된 허위를 풍자하고 모순에 저항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원전 작품의 주제는 고스란히 살리면서 우회적으로 현실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 정의홍 시가 지닌 패러디의 매력이다.

정끝별은 원텍스트의 권위 및 근거를 문제 삼지 않는 혼성모방적 패러디는 8, 90년대 들어 성행했다고 보고 있다. 그 직접적인 이유는, 80년대라는 특수한 정치적 억압 상황에서 우회적인 현실비판의 역할과 문학적 여과 장치로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²⁰⁾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정의홍의 시에 나타나는 패러디는 사회구조적 모순과 이해에 바탕을 두고, 이를 풍자의 어법을 통해 우회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로 보인다.

패러디는 두 텍스트 간의 형식적·구조적 관계 속에 나타나는 담론 형식으로써 파괴와 창조라는 양면성의 심미적 기능과 차이를 둔 반복의 비평적 거리를 유지한다.²¹⁾ 『미국산 놀부 2』는 『홍부전』에 등장하는 놀부를 토대로 하여 ‘미국산 놀부’라는 새로운 시적 의미를 추출하고 있는 작품이다. 패러디는 대상과의 거리를 유지하며 화자가 풍자의 대상에 대해 논평을 가하지 않고 단지 대상에 대해 능청스럽게 이야기함으로써 비판의 효과를 거두는 진술방

20) 정끝별, 『패러디 시학』, 문학세계사, 1997, 271면.

21) 신익호, 『현대문학과 패러디』, 제이앤씨, 2012, 50면.

식이다. 『미국산 놀부 2』는 이러한 패러디의 기법을 통해 미국과 우리의 불합리한 종속관계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누가 나를 열녀라고 불러줄까
내 욕심, 내 가문 먼저 챙기기 위해
당신을 처음 만난 바로 그날밤
그렇게도 쉽게 그것을 바쳤는데
누가 나를 열녀라고 불러줄까

그대 광한루에서
처음 시선을 보내 왔을 때
내가 부끄러운 척 얼굴을 붉히면서도
창기보다 진한 눈웃음을 보낸 것은
마음 속으로 계산된 꿈이 있었지
그대가 낭군이 되어준다면
기생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꿈
비록 천기의 신분일망정
양반택 소실이 될 수 있다는 꿈

… (중략) …

누가 날 열녀라고 불러줄까
나의 사랑은 참된 사랑이 아니라
계산된 꿈
우리 어미 후일을 다짐받고서야
이불을 퍼드린 것만 보아도
열여섯 숙처녀가
첫날밤 온갖 교태를 부린 것만 보아도
누가 나를 열녀라고 불러줄까

—『춘향이가 이도령에게』(『하루만 허락받은 시인』, 74면) 에서

위에 인용한 『춘향이가 이도령에게』에서 화자인 춘향이는 고전 작품에서 회자되었던 정절의 여인이 아니다. 그녀는 이몽룡을 “처음 만난 바로 그날밤

/ 그렇게도 쉽게 그것을 바꿨”다고 고백한다. 그것은 “마음 속으로 계산된 꿈”이 있어서라고 말한다. 그 꿈은 “기생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꿈”이거나 “양반댁 소실이 될 수 있다는 꿈”이다. 그래서 자신의 “사랑은 참된 사랑이 아니라 / 계산된 꿈”이다. “열여섯 숫처녀가 / 첫날밤 온갖 교태를 부린 것만 보아도” 누구도 자신을 열녀라 불러주지 않을 거라 말한다. 이 시는 춘향이의 목소리로 신분상승의 욕구 때문에 사랑을 이용했던 그녀의 내면 심리를 독백 형식으로 들려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전 작품에서의 춘향은 이몽룡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지켜낸 정절의 여인으로 회자되었다. 하지만 위의 시에서 춘향의 이몽룡에 대한 사랑은 “내 욕심, 내 가문 먼저 챙기기 위”한 “계산된 꿈”이었다. 이몽룡이 낭군이 되어준다면 기생 신분에서 벗어나거나 양반댁 소실이 되고자 하는 신분상승의 계산된 꿈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정의홍은 화자의 내면세계에 꿈틀대는 신분상승의 무의식적 욕망들을 들추어냄으로써 춘향은 열녀가 아니라 계산된 꿈을 좇는 속물적 인간으로 그리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춘향의 사랑은 참된 사랑이 아니라 계산된 꿈이었음을 폭로하는 것이다. 이처럼 정의홍의 비판적 현실인식은 화자의 주관적인 내면세계에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더군다나 춘향의 사랑에 대한 무의식적 욕망을 그녀의 음성으로 솔직하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반성을 통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외에도 『하루만 허락받은 시인』 제Ⅱ부에 수록되어 있는 「말뚝이」, 「현대식 정음사」, 「溫達의 울음」, 「월령가 13수」, 「나도 백결선생이 되어」, 「서동의 말」, 「배비장의 변명」, 「수로부인의 고백 1」, 「수로부인의 고백 2」 등도 고전 작품을 패러디한 작품들에 해당한다. 이들 작품을 통해 정의홍은 지금까지 알려진 고전 작품을 모티브로 하여 새로운 시적 의미망을 창조하고 있다. 그것은 고전 작품을 모티브로 하여 주인공의 무의식적 내면 세계를 표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예를 들면, 문체적 현실의 구조적 모순, 신분상승의 욕구, 사랑과 권력에 대한 탐욕 등을 현재적 시각에서 재해석 하고 있다는 점이 그러하다. 정의홍은 이러한 패러디의 기법을 시 창작에 이용하여 독자로 하여금 재미와 유희와 감동을 주고 있다.

4. 전통의식과 비판적 현실인식

정의홍은 현실세계에 대한 치열한 사랑과 아픔의 흔적을 그만의 비유와 창작 기법을 통해 현실지향시의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정의홍의 시는 문체적 현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기저에 깔고 있다. 그는 부정적 현실을 표출함에 있어서 다양한 시적 여과 장치를 활용한다. 시 창작에 있어서 그가 주목하는 것은 현실에 대한 예리한 관찰과 철저한 자기반성에 있다. 그러면서도 당시의 시인들이 간과했던 ‘시적인 맛’을 살리기 위해 기법적 측면에 주목하면서도 “충실한 체험과 자기의 삶을 추구하”²²⁾여 올바른 시도(詩道)를 찾고자 한다.

정의홍의 시에 나타나는 이미지들은 일반적으로 고통, 허무, 불안 등과 관련된 것들이 많다. 그는 현실세계의 고통과 허무, 불안 등의 부정적 요소를 해소하기 위하여 전통적인 소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것은 유년의 기억 속에 잠재해 있는 시원(始原)의 세계를 통해 부조리한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시간이 나를 뽕뽕 묶으며
지구밖으로 추방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나의 목을 아리도록 졸으면서
저승으로 추방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시든 몸을 툭질하면서
종교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나는 시간보다 잔인한
아아, 무서운 과거가 있습니다.

-『운명』(『밤의 幻想曲』, 67면) 전문

인용한 시는 『밤의 幻想曲』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이다. 시간은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 미래로 쉽 없이 흘러간다. 하지만 시간의 궤적을 거시적으로 보면 시간은 수많은 현재들이 모여 과거를 생성하기 마련이다.

22) 정의홍, 「올바른 詩道를 위하여」, 『현대시학』, 1976. 5, 61면.

이 작품에서 화자는 시간에게 일방적으로 지배당하고 있다. 시간은 “나를 뽕뽕 뉘”거나 “목을 아리도록” 조이고, “몸을 툭질”하기도 한다. 그래서 화자는 이러한 시간의 폭력 때문에 “지구밖으로” 혹은 “저승으로 추방” 당하고 만다. 지구 밖으로 혹은 저승으로 추방당한 화자는 “종교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화자는 시간의 폭력으로 현재의 삶을 제대로 구현할 수가 없다. 화자에게 현재의 시간은 폭력적이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서 주체성을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시간보다 잔인한 / 무서운 과거가 있”음을 인식하게 되는데 그것은 현재의 시간에 대한 화자의 퇴행적 행위로 읽을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시간보다 잔인한 ‘무서운 과거’에 있다. 무수한 현재들은 과거를 생성하는 것이기에 화자에게 ‘무서운 과거’는 현재의 집적일 수밖에 없다.

현재의 시간이 누적되면 과거가 형성된다. 과거는 현재의 역사이자 퇴행이기 때문이다. 시인은 이 작품에서 인간의 ‘운명’이 시간의 폭력성에 반할 수 없으며 그 안에서 생성되는 ‘과거의 시간’에 방점을 찍고 있다. 현재의 시간을 통해 과거의 삶을 반추하는 행위는 유아적 유희의 형태로 볼 수 있다.

과거의 시간에 천착하는 시인의 집요함은 다른 시에서는 전통의식의 변주로 나타나기도 한다. 정의홍의 시에서 전통의식은 농촌 생활에 대한 유년의 기억을 상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그가 유년 시절을 보낸 경북 예천군 개포면 갈마리²³⁾는 한국의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다. 하지만 그의 시에 나타나는 농촌의 현실은 유년 시절에 체험했던 따뜻하고 정이 넘치는 고향의 이미지로 형상화되기보다는 산업화와 근대화로 황폐화된 아픔의 공간으로 제시되고 있다.

불고추를 먹은 듯한 더위에도 너는 건디어 왔다. 우리나라 역사만큼 무거운 짐을 지고도 살아 있는 혼으로 남아 있었다. 20세기가 죽어가는 시간, 너는 자존심도 없이 경운기 밧구르는 소리에 무릎을 꿇었다. 이젠 우리의 뒷모습으로 남은 너의 이름을 부르면, “예”라는 대답은 점점 시들어가고, 늙은 과수매의

23) 김현정은 대전대학교 국문과 신문인 《진달래》에 정의홍 시인의 생애와 작품 약력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정의홍은 경북 예천군 개포면 갈마리 61번지에서 태어나 개포국민학교와 용궁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그곳에서 생활했다고 한다. 1960년 덕수상업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의 생활을 시작하였다. (김현정, 『하루만 허락받은 시인 정의홍』, 『진달래』, 대전대 국문과 신문, 1996. 6. 10.)

멋없이 벌어진 가랑이처럼 헤벌려진 너의 두팔 위엔 피곤함만 가득히 실려 있구나. 친구녀석은 보이지 않았다. 이 나라 농부들의 손이 논밭에서 하나 둘 잘리어 나가면서, 평생을 지게와 함께 살겠다던 그는 보이지 않았다. 인천 어느 공장에 운전사로 취직했다는 소식, 먼저 떠난 고향친구들의 환한 얼굴을 떠올리며, 농촌 사람들 마음만큼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그는 결국 떠나고 말았다. 내가 고향을 났을 때마다 임자 없는 주소에 홀로 누워 있거나 금간 담벼락에 외롭게 기대어 섰던 너, 간혹, 너는 총 맞은 몇 마리 갈매기로 날아올랐고, 나는 서낭당의 느티나무로 서서 노을이 지는 바다를 훑쳐보았지. 이제 도시의 낮선 어둠을 쓸어내는 비질 소리도 들리고, 절망마다 강하게 내리박은 못질 소리가 숨찬 산등성이를 넘어가고 있는데, 너만이 우두커니 죽은 시체로 남아야 하는가. 비록 몸은 죽어가도 이 나라의 키보다 높이 자라날 너의 영혼이여, 너는 조선의 뿌리로 다시 살아나 영롱한 빛깔로 타오를 것이다.

—「조선의 지게」(『하루만 허락받은 시인』, 68~69면) 전문

「조선의 지게」에서 시인은 “우리나라 역사만큼 무거운 짐을 지고도 살아 있는 혼으로 남아 있”는 지게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다. 농경 사회에서 지게는 필수적 농기구이었다. 하지만 산업화와 근대화의 물결 속에서 농촌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노동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새로운 농기계가 개발되고 사용되었다. 결국 지게는 “경운기 밧구르는 소리에 무릎을 꿇”고 만다. 지게는 경운기에게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모두 빼앗기고 “늪은 과수대의 멋없이 벌어진 가랑이처럼 헤벌려진 두팔에 피곤함이 가득 실려” 있다. 지게의 모습을 “늪은 과수대의 멋없이 벌어진 가랑이”라고 표현한 것은 생산성이 중단된 지게의 이미지와 ‘늪은 과수대’의 접목을 통해 기형적인 농촌현실에 대한 암담함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지게의 용도가 퇴색하게 되자 “농부들의 손이 논밭에서 하나 둘 잘리어 나”갔다. 평생을 지게와 함께 살겠다던 농부들의 모습은 농촌의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농부들이 없는 농촌에서 지게는 “임자 없는 주소에 홀로 누워있거나 금간 담벼락에 외롭게 기대어 섰”을 뿐이다. 시인은 농촌의 공동화 현상을 통해 “우두커니 죽은 시체로 남아”있는 지게를 묵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 시의 마지막 부분에서 시인은 지게가 “이 나라의 키보다 높이 자라날 영혼”으로 “조선의 뿌리로 다시 살아나 영롱한 빛깔로 타오를 것”이라고 말한

다. 비록 현재는 그 쓰임이 끝났지만 시인의 유년의 기억 속에 잠재해 있는 지계는 조선의 뿌리로서 고향을 말없이 지키고 섰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산업화와 근대화의 과정에서 경험했던 상실과 소외를 극복하기 위하여 시인은 산업화와 근대화 이전의 시원(始原)의 세계에서 인간다운 삶의 공간을 찾고 있는 것이다. 유년 시절에 경험했던 시원(始原)의 공간을 통해 산업화와 근대화의 부정적인 단면들을 치유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대는 새색시 유방처럼 솟아오른
내 어린 시절을 부추겨
도시로 떠남을 꿈꾸게 하고
시들어 갈 무렵
또 한 잎 고향에 돌아갈 꿈으로
불타오르게 하느니
나이 씩 줄 가까이 되어
다시 세상을 배우게 한다
무더운 서울 날씨 덕분으로
아내가 기형아를 낳았다고 해서
그런게 아니라
누이동생이 시커먼 굴뚝과
간통해서 그런게 아니라
그대 스스로 타는 조용한 몸짓에서
그리움에서 나를 바라보며
세상을 배운다

… (중략) …

철이 덜 든 시인들이
그대를 꿈으로 노래하고자 한다
고급 승용차로 시장가는 싸모님도
뇌물로 살이 부어오른 정치인도
그대를 멋으로 켜고자 한다
등잔불은 아무나 그렇게

꿈이나 멋으로 켜는게 아니다
 마음으로 켜는 것
 나처럼 촌구석에 태어나
 촌스럽게 그대를 노래하는 것은
 생존이거나 눈물이지만
 도시에서 태어나 도시같이 살아 온
 사람이 그대를 노래하는 것은
 위선이거나 동경이다
 산다는 것은 그대 모습처럼
 속으로 울고 속으로 타오르는 것
 이 한 밤 그대는 어머니처럼
 가슴을 따뜻이 열어놓고
 또 한 잎 고향에 들어갈 꿈으로
 나를 배우게 한다

—「등잔불」(『하루만 허락받은 시인』, 57~59면)에서

위의 시에서 시인은 ‘등잔불’이라는 전통적인 소재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산업화와 근대화의 여파로 ‘등잔불’은 우리의 생활에서 사라져버렸다. 전 등불에 밀려 그 생명력을 다한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등잔불은 산업화와 근대화의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빼앗긴 전통의식의 상실로 읽힌다.

화자는 등잔불이 “새색시 유방처럼 솟아오른 / 내 어린 시절을 부추겨 / 도시로 떠남을 꿈꾸게” 한다. 농촌의 궁핍한 삶은 농촌 사람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희망이 있는 도시로의 길떠남을 부추겼다. 하지만 화자에게 도시에서의 생활은 궁정적이지 못하다. 예를 들면, “아내가 기형아를 낳았다”든가 “누이동생이 시커먼 굴뚝과 / 간통”을 하였다는 상황 설정이 그러하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정의홍 시인이 비판적 현실인식을 표출하는 경우 성적 표현들을 자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성적인 표현을 하더라도 ‘기형아의 출생’이나 ‘굴뚝과 간통을 하였다’는 등의 부정적 이미지가 주를 이룬다. 기형아의 출생이나 굴뚝과의 간통은 산업화와 근대화의 부작용으로 이해된다.

성적 이미지를 생성하는 ‘기형아의 출생’이나 ‘굴뚝과의 간통’의 주체는 화

자의 아내와 누이동생이다. 아내의 ‘기형아 출생’과 누이동생의 ‘굴뚝과의 간통’은 그녀들이 도시적 삶에서 감내해야 했던 이기적 문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로 들린다. 왜냐하면 아내가 기형아를 출생한 원인이 “무더운 서울 날씨”에 있고, 누이동생의 간통 또한 산업화의 상징은 “시커먼 굴뚝”에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그녀들의 성적 폭력은 산업화와 근대화가 불러온 도시적 삶의 문제적 현실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렇다면 서울의 무더운 날씨 때문에 기형아를 출생한 아내나 시커먼 굴뚝과 간통을 한 누이동생은 산업화와 근대화의 과정에서 소외된 계층을 대변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시인은 산업화와 근대화의 부정적 현실을 성적 이미지로 치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통의식의 부재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소외의식을 노래하고 있다.

‘등잔불’의 상징적 의미는 고향과 그리움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화자는 근대적 문물인 전등불에 밀려 설 자리가 없어진 등잔불의 “스스로 타는 조용한 몸짓”과 “그리움에서 나를 바라보며 / 세상을 배운다”고 말한다. 등잔불에 대한 그리움과 스스로 몸을 태워 불을 밝히는 속성을 통해 세상살이의 질곡을 터득하고 있다.

도시의 삶에서 상실과 환멸을 경험한 화자는 문제적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그것은 화자가 도시로의 편입 이전에 경험했던 ‘고향’으로의 회귀이다. 화자는 “나이 쉰 줄 가까이 되어” 등잔불의 “스스로 타는 조용한 몸짓”을 통해 “세상을 배운다”. 등잔불의 스스로 타는 조용한 몸짓에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고향에 돌아갈 꿈”을 꾸게 되는 것이다. ‘고향’으로의 회귀는 현재적 삶에 대한 자기 반성과 성찰을 동반하게 된다. 화자는 ‘고향’이라는 시원(始原)의 공간을 통해 산업화와 근대화에 따른 상실과 소외를 치유하고자 하는 것이다.

시의 중반 이후에 “철이 덜 든 시인들”이나 “고급 승용차로 시장가는 싸모님”, “뇌물로 살이 부어오른 정치인”들은 등잔불을 꿈으로 노래하고 멋으로 켜고자 한다. 도시인 혹은 문명인으로 대표되는 이들이 등잔불을 노래하는 것은 위선이나 동경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촌구석에서 태어나 촌스러운 삶을 살아온 화자에게 등잔불은 생존이거나 눈물이다. 나이 쉰 줄 가까이 된 화자는 등잔불이 주는 살신성인의 정신을 통해 산다는 것의 의미를 깨닫고 있다.

즉, 산다는 것은 등잔불처럼 “속으로 울고 속으로 타오르는 것”이다. 고향을 떠나 도시에서 생활하고 있는 화자는 등잔불을 통해 “어머니처럼 / 가슴을 따 뜻이 열여놓고” 고향에 돌아갈 꿈을 꾸며 세상을 배우고 있다.

정의홍의 시에 나타난 전통의식은 유년의 체험을 기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향 회귀의 성격을 띠고 있다. 시인은 과거의 기억을 반추하여 현재적 입장에서 세상을 읽어내고 있다. 산업화와 근대화에서 경험한 상실과 소외를 ‘고향’이라는 시원(始原)의 공간을 통해 극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점에서 정의홍 시의 전통의식은 현실세계에 대한 치열한 사랑과 충실한 자기 체험적 시원(始原)의 공간에 모태를 두고 있다고 하겠다.

5. 맺음말

정의홍 시인은 1967년에 등단하여 1996년 타계하기까지 30년 동안 시를 창작하였다. 시를 창작한 30년의 경력에도 불구하고 그가 발표한 시집은 『밤의幻想曲』과 『하루만 허락 받은 시인』 단 두 권뿐이다. 이 글에서는 두 시집에 수록된 작품을 대상으로 정의홍 시의 비판적 현실인식의 형상화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째, 정의홍의 시는 비판적 현실인식을 표출함에 있어서 성적인 이미지를 자주 활용하고 있다. 그는 시를 창작할 때 ‘시적인 맛’을 살리기 위해 이미지 창출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그의 시에서는 성적인 이미지들을 자주 볼 수 있다. 정의홍 시에서 성적 이미지는 부정적 현실을 고발하기 위한 시적 여과 장치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부정적인 시어와 비윤리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둘째, 정의홍의 시는 고전 작품을 현재적 의미로 해석하여 패러디한 작품이 많다. 정의홍은 고전 작품을 현재적 입장에서 재해석하고 이를 패러디하여 작품으로 승화하고 있다. 고전 작품을 모티브로 하여 문체적 현실의 구조적 모순, 신분상승의 욕구, 사랑과 권력에 대한 탐욕 등 화자의 무의식적 내면세계를 현재적 의미로 해석하여 들추어내고 있다. 이러한 패러디를 통해 시인은 독자에게 풍자와 위트와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준다.

셋째, 정의홍의 시는 산업화와 근대화의 과정에서 소외된 계층의 아픔을

전통의식의 부재에 찾고 있다. 정의홍은 현재의 시간을 통해 과거의 삶을 반추하여 자아에 대한 탐색과 반성을 꾀하고 있다. 정의홍 시의 전통의식은 유년의 기억을 상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산업화와 근대화로 궁핍한 삶과 소외를 경험한 농촌의 현실을 전통적 소재를 통해 제시하고 시원(始原)의 공간에서 해결책을 찾고 있다.

정의홍의 시는 현실 생활에 모티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사회나 인간현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짙다. 하지만 그는 비판적 현실인식을 표출함에 있어서 성적 이미지, 고전 작품의 패러디, 전통의식의 표출 등 다양한 시적 여과를 거친다. 그의 시는 문명비판적이고 현실 고발의 성격을 띠고 있다 하더라도 ‘시적인 맛’을 잃지 않도록 유념했다. 정의홍 시의 ‘시적인 맛’은 신선한 이미지와 밀도있는 질서의 표출로 주제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부조리한 현실의 고발과 대안을 제시하면서도 또 다른 현실지향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시사적으로 의미가 있다. 이번 연구를 계기로 정의홍의 시에 대한 학문적 의미 영역을 확장하고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1. 자료

정의홍, 『밤의 幻想曲』, 신라출판사, 1976.
_____, 『하루만 허락받은 시인』, 새미, 1996.

2. 논저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2, 민음사, 2002.
김교식, 『『밤의 幻想曲』의 성적 이미지러리 고찰』, 『대전어문학』제17집, 대전대학교 국어국문학회, 2000. 2.
김완하, 『현실에 대한 사랑과 그 고통 - 鄭義泓의 『하루만 허락받은 시인』』, 『호서문학』22, 1996. 11.
김용재·김현정, 『정의홍의 시세계 - 그의 시에 나타난 근대성을 중심으로』, 『인문과학논문집』30집, 대전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0.
김은하, 『현대사회와 문학적 상상력』, 거름, 1997.
김현정, 『하루만 허락받은 시인 정의홍』, 『진달래』, 대전대 국문과 신문, 1996. 6. 10.
박진환, 『情 많고 남달리 의협심 강했던 詩人』, 『진단시』 제21집, 1996. 10. 1.
빈명숙, 『鄭義泓 詩 研究』,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8.
신경림, 『춥고 어두운 세월 속, 치열한 시정신의 軌跡』, 『하루만 허락받은 시인』, 새미, 1996.
신익호, 『현대문학과 패러디』, 제이앤씨, 2012.
이광희, 『저항시의 고향』, 『대전매일신문』1996년 10월 16일과 10월 23일 2회 연재.
이순옥, 『풍자와 패러디』, 김준오 편, 『한국 현대시와 패러디』, 현대미학사, 1996.
이승원, 『사랑의 길목에서 저항의 능선까지』, 『現代詩와 傳統意識 - 震檀詩同人의 文學的 成果研究』, 문학예술, 1991.

- 이승훈, 『문학상징사전』, 고려원, 1995.
- 장백일, 『파소에 저항하는 詩精神 - 시집 『하루만 허락받은 시인』의 증언』, 『진단시』제21집, 1996. 10. 1.
- 정끝별, 『패러디 시학』, 문학세계사, 1997.
- 정신재, 『진실을 깨우는 소리 - 정의홍 시집 『하루만 허락받은 시인』』, 『시문학』10월호, 1996.
- 정의홍, 『個性的인 詩領土의 摸索』, 『문학과지성』6권 1호, 1975. 3.
- _____, 『詩의 眞實性을 위하여』, 『현대시학』, 1975. 8.
- _____, 『올바른 詩道를 위하여』, 『현대시학』, 1976. 5.
- _____, 『身邊雜記的 넋두리』, 『시문학』3, 1982.
- _____, 『사랑의 모든 것』, 『심상』11, 1986.
- 정의홍시비 건립위원회, 『정의홍 시인의 삶과 문학』, 호서문학사, 1999.
- 조미나, 『자유와 순수를 향한 한얼의 파수꾼』, 『호서문학』22, 1996. 11.
- 홍신선, 『물과 참외의 두 길』, 『현대시』 7월호, 1996.

【국문초록】

정의홍은 1967년에 등단하여 1996년 타계하기까지 30년 동안 시를 창작하였다. 그가 작품 활동을 했던 시기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격변의 시대였다. 이러한 시대에 정의홍은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작품에 담아내고 있다. 하지만 그의 시가 현실 체험에 바탕을 두고는 있지만 당시에 발표된 시와는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다. 본고는 정의홍 시에 대한 문학적 특징을 모색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정의홍 시의 문학적 특징은 다음의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정의홍 시의 문학적 특징은 비판적 현실인식을 표출함에 있어서 성적인 이미지를 자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의 시가 현실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담고 있으면서도 다양한 이미지의 생성에 주력한 것은 문학적 예술성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특히 그의 시에는 성적 이미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이미지들은 긍정적이고 생산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이고 비윤리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것은 그의 시에서 성적 이미지는 부조리한 현실을 비판하기 위한 시적 여과 장치로 활용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정의홍의 시는 고전작품을 현재적 의미로 해석하여 패러디한 작품이 많다. 고전작품을 모티브로 하여 문제적 현실의 구조적 모순, 신분상승의 욕구, 사랑과 권력에 대한 탐욕 등을 시적 화자의 목소리로 들려주고 있다. 이러한 패러디 기법을 통해 풍자와 위트와 카타르시스를 제공하고 있다.

셋째, 정의홍의 시는 산업화와 근대화의 과정에서 소외된 계층의 아픔을 전통의식의 부재에서 찾고 있다. 정의홍에게 과거의 시간은 유년에 체험한 전통의식으로 표출된다. 정의홍의 시에서 전통의식은 농촌 생활에 대한 유년의 기억을 상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그의 시에서 농촌의 현실은 유년 시절에 체험했던 따뜻하고 정이 넘치는 고향의 이미지이기보다는 산업화와 근대화로 황폐화된 아픔의 공간으로 채색되어 있다.

주제어 : 정의홍, 현실인식, 성적 이미지, 패러디, 전통의식

【Abstracts】

A Study on the Critical Awareness of a Reality in Jeong Eui-Hong's Poetry

Kim, kyoshik

Jeong Eui-Hong has written poetry for 30 years since his starting literary career in 1967, until his death in 1996. Those days were an upheaval period on politics, economics, society, and culture. Jeong Eui-Hong puts criticism into his work. His poetry includes experience of reality; however, it is different with engagement poetry of those days. This study is to search the literature characteristic of Chung's poetry which can be divided into next three characteristics.

The first characteristic is that the sexual images are used frequently to express the Critical Cognition. It is because he thought literal artistry importantly that his poetry not only have criticism on the reality also create various image. Especially the sexual images appear remarkable and most of images are not affirmative or productive but pessimistic and immoral. It is because the sexual images used for the poetic filtration equipment which criticizes irrational reality.

The second, there are a lot of poetic works that parody the classical literatures with the modern meaning. It shows the desire on ascent of status, the greed on wealth and power, and the explanation on freedom and

love with a voice of poetic narrator by the motive of classical literature. The poet offers a satire, a wit and a catharsis by this technique of parody.

The third characteristic is that the poetry of Jeong searches the injury of neglected class with moder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in the absence of the traditional consciousness. The past time of Jeong, is appeared traditional consciousness that he experienced in youth. The traditional consciousness in the poetry of Jeong Eui-Hong, starts from reminding memory of youth. In his poetry, the reality of rural district is described not as the warmhearted hometown which has been experienced on youth, but as the ruined space with moder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Key words : Jeong Eui-Hong, awareness of reality, sexual image, parody, traditional consciousness.

이 논문은 2013년 12월 30일에 투고되었으며, 2014년 1월 27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4년 2월 7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